

‘-ㄴ/ㄹ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에 대한 연구

김선혜*

|| 차례 ||

- I. 서론
- II. ‘-ㄴ/ㄹ 것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
- III. ‘같다’의 정체성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 구문에 쓰인 ‘같다’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ㄴ/ㄹ 것 같다’ 구문은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1인칭 주어를 가지며 ‘-ㄴ/ㄹ 것’ 절은 ‘같다’의 보문으로 볼 수 있다. ‘-ㄴ/ㄹ 것 같다’ 구문의 ‘같다’는 대칭 형용사로서 심리 형용사로 발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심리형용사 구문과 문법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ㄴ/ㄹ 것 같다’ 구문이 거절 화행에서 많이 쓰이는 것 역시 ‘같다’가 주어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로서 거절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주제어 : 같다, 추측 구문, 문법화, 심리형용사, 통사적 접사

*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1. 서론

형용사 ‘같다’는 다양한 구조의 문장을 만든다. 따라서 ‘같다’가 이루는 각 구문의 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학계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같다’는 통사적, 의미적 특징에 따라 크게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¹⁾

(1) ‘같다’의 용법

- ㄱ. 내 나이는 그의 나이와 같다. (동등비교구문)
- ㄴ. 그런 말에 속다니 바보 같다. (비유 구문)
- ㄷ. 비가 올 것 같다. (추측 구문)

이때 용법에 따라 공동격 조사 ‘와/과’의 생략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1ㄱ)에서는 ‘와/과’가 생략될 수 없는 반면 (1ㄴ)의 경우 생략이 수의적이기는 하나 생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1ㄷ)의 경우에는 오히려 ‘와/과’가 실현되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1ㄱ)과 (1ㄷ)은 다른 구조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1ㄱ)과 같은 동등 비교 구문에서 쓰이던 ‘같다’가 (1ㄴ)의 ‘비유’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면서 현대 국어에서 (1ㄷ)과 같은 ‘추측’ 구문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본다. 박승윤(1998), 이근용(2007), 김창섭(2012)과 같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 ‘같다’가 쓰인 동등 비교 구문과 추측 구문의 문장 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졌으나 추측 구문에 쓰인 ‘같다’는 왜 동등 비교 구문과 다른 문장 구

1) 본고의 연구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꿈같다’, ‘찰떡같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형용사 ‘같다’에서 파생접사로 문법화된 예도 있다.

조를 이루는지 이때 ‘같다’의 문법적 지위나 범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왜냐하면 추측 구문의 ‘같다’는 ‘추측’이라는 의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추측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ㄴ/ㄹ 것 같다’를 문법적 언어 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전나영(1999), 김동욱(2000), 안주호(2004) 등과 같이 ‘같다’의 추측 기능을 다른 추측 표현들과 비교하는 연구 성과도 축적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ㄴ/ㄹ 것 같다’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그 의미 기능을 밝히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본 연구는 추측의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분석하여 이 구문에 쓰인 ‘같다’의 정체성에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한다. 추측 구문의 ‘같다’의 경우 ‘-ㄴ/ㄹ 것’의 문법화와 ‘같다’의 문법화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²⁾ 이 ‘-ㄴ/ㄹ 것 같다’의 문법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추측 구문에 쓰인 ‘같다’³⁾의 문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본고는 ‘-ㄴ/ㄹ 것 같다’가 보이는 통사적, 의미적 특징들은 ‘-ㄴ/ㄹ 것’의 문법화와 ‘같다’의 문법화가 함께 일어나 생긴 결과라고 본다. 본고는 ‘같다’의 문법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나 ‘-ㄴ/ㄹ 것’이 일종의 명사화 어미로 문법화되고 있다고 본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상론하지 않겠다. ‘-ㄴ/ㄹ 것’ 절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문숙영(2017) 참조.

3) ‘같다’ 추측 구문은 항상 ‘(관형사형 어미)+것 같다’로 나타나므로 이하 서술에서는 ‘같다’의 추측 구문에 대해 ‘-ㄴ/ㄹ 것 같다’ 구문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II. ‘것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성

1. 주어의 문제

우선 ‘것 같다’ 구문의 주어가 무엇인지 주어와 관련한 제약이나 통사적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2) ㄱ. 비가 올 것 같다.
- ㄴ. [비가 올] 것 같다.

(2ㄱ)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박승윤(1998)이나 이근용(2007), 김창섭(2012)과 같은 논의에서는 (2ㄴ)의 구조를 상정하고 ‘것 같다’ 구문이 무주어문임을 주장한다.⁴⁾ 본고 역시 (2ㄴ)과 같이 ‘비가’가 동사 ‘오다’의 주어라고 보는데 ‘비가’의 위치에 오는 명사구가 ‘오다’의 위치에 오는 서술어의 주어라는 것은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3) ㄱ. 할아버지께서 늦으실 것 같다.
- ㄴ. *?할아버지께서 늦을 것 같으시다.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늦다’와 호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늦다’의 주어가 ‘할아버지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같다’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2)나 (3)과 같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4) 박승윤(1998)과 같은 논의에서는 ‘같다’를 모문의 서술어로도 보지 않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주어의 문제는 ‘-ㄴ/르 것 같다’ 구문의 ‘같다’의 정체성과 큰 관련이 있다.

‘같다’의 주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박승윤(1998)이나 이근용(2007), 김창섭(2012) 등에서 ‘것 같다’ 구문을 무주어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2)나 (3)과 같은 ‘-ㄴ/ㄹ 것 같다’ 구문은 주어가 비실현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자 하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ㄴ/ㄹ 것 같다’ 구문의 주어가 존재하기는 하나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위의 (2),(3)과 같이 주어가 비실현된 문장을 다음과 같이 주어가 실현된 문장으로 같음해 볼 수 있다.

- (4) ㄱ. 나는 비가 올 것 같다.
 ㄴ. 나는 할아버지께서 늦으실 것 같다.

위와 같이 (2)의 문장에 1인칭 주어인 ‘나는’을 상정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1인칭 주어의 상정은 다른 추측 구문하고는 크게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 (5) ㄱ. 나는 비가 올 것 같다.
 ㄴ. (*나는) 철수가 지각할 거야.
 ㄷ. (*나는) 철수가 지각하겠다.
 ㄹ. (?나는) 철수가 지각할 듯하다.
 ㅁ. (*나는) 철수가 지각한 모양이다.

대표적인 한국어의 추측 표현인 선어말어미 ‘-겠-’이나 의존명사 구문인 ‘-ㄴ 것이다’, ‘-ㄴ 듯하다’, ‘-ㄴ 모양이다’ 구문에서는 모두 1인칭 주어의 상정이 어려운 반면, ‘-ㄴ/ㄹ 것 같다’ 구문에서는 1인칭 주어의 상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ㄴ/ㄹ 것 같다’ 구문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나는’이 ‘같다’의 주어라는 것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⁵⁾

- (6) ㄱ. 나는 할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늦을 것 같으세요?⁶⁾

(6ㄴ)의 문장을 보면 ‘같다’에 결합한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는 ‘할아버지’와 호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볼 때 ‘같다’의 주어인 ‘할아버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ㄴ/ㄷ 것 같다’ 구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7) 나는(주어) [[비가 오]ㄷ 것] 같다(서술어).

‘-ㄴ/ㄷ 것 같다’ 구문이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렇

- 5)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주어 검증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논의도 존재하나 그 예는 대부분 ‘-시-’가 주제어와 같은 화용적 요소와 호응하는 예이다. 본고 가 ‘-ㄴ/ㄷ 것 같다’ 구문에서 주어로 상정하는 1인칭 화자는 주제어나 화용적 요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를 주어 검증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한 심사위원은 이른바 주격중출구문에서 첫 번째 ‘-은/는’ 명사구를 주제어로 보는 논의를 제시하며 ‘-ㄴ/ㄷ 것 같다’ 구문의 ‘나는’ 역시 주제어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다. 그러나 주제어의 경우 의미적으로 해당 문장의 내용에 대한 ‘주제’ 또는 ‘화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ㄴ/ㄷ 것 같다’ 구문에서 경험주인 ‘나는’이 추측 구문의 주제나 화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6)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늦을 것 같으시다.”로 바꾸면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사실 주어 인칭의 문제이다. 앞서 밝혔듯이 ‘것 같다’ 구문의 주어는 1인칭인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ㄴ/ㄷ 는 ‘것 같다’ 구문의 주어를 확인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청자가 되는 자연스러운 예문으로 바꾸어 썼음을 밝힌다. ‘-ㄴ/ㄷ 것 같다’ 구문의 주어가 1인칭으로 제약되는 인칭 제약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해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다면 ‘-ㄴ/ㄹ 것’이 이끄는 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문장 내에서의 기능과 성분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ㄴ/ㄹ 것’ 절의 문제

‘같다’가 동등비교 구문에서 사용될 때는 공동격 조사 ‘와/과’의 실현이 필수적인 데 반해 ‘것 같다’ 구문에서 공동격 조사 ‘와/과’는 항상 비실현된다는 점은 ‘-ㄴ/ㄹ 것 같다’ 관련 연구에서 수차례 지적되어 왔다. 비유 구문에서도 역시 조사의 생략이 수의적이라고 하나 생략이 더 자연스럽다고 볼 때 동등비교 구문을 제외한 ‘같다’ 구문에서 공동격 조사 ‘와/과’는 실현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⁷⁾

(8) ‘같다’ 구문의 조사 실현 양상

- ㄱ. 철수는 영희와 나이가 같다. (동등비교 구문)
- ㄴ. 철수는 아직도 아이(와) 같다. (비유 구문)
- ㄷ. 철수는 학생인 것(∅) 같다. (추측 구문)

이렇듯 조사가 생략되는 현상이 수의적이지 않고 필수적이 되는 구문은 드물기는 하나 존재하는데 김창섭(2011)에서는 이렇듯 격표지를 가지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어휘 부류를 ‘부접어’로 설정하고 있다. 김창섭(2011)에서 이들을 다시 부접명사, 부접부사, 부접동사, 부접형용사로 나누는데 ‘-ㄴ/ㄹ 것 같다’의 ‘같다’를, ‘-이다’와 ‘-답다’와 함께 부접형용사로 본다. 그러나 ‘-이다’와 ‘-답다’는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다’와 동격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

7) 김정아(1993)에 따르면 중세국어부터 비유 구문에서 조사가 생략되는 예가 많이 등장하였다.

가 있다.⁸⁾ 오히려 이 논의에서 부접동사로 제시한 ‘시작하다’의 예와 ‘같다’의 예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들이 본래 용언에서 추상화된 의미로 발달되었다는 점도 유사하며 ‘-기 시작하다’ 구문에서 ‘-기’ 절은 절 표지를 가지지 않는 명사절이라는 점도 ‘-ㄴ/ㄹ 것 같다’ 구문의 ‘것’ 절과 유사하다. 또한 김창섭(2011)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기’ 절을 보충어로 하는 다른 구문들에서도 절 표지가 생략되는 일은 흔하게 나타난다.

- (9) ㄱ.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ㄴ. 서두르면 실수하기(∅/가) 쉽다.
 ㄷ. 철수는 일을 하느라 밤을 새우기(∅/가) 일쑤다.
 ㄹ.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다.
 ㅁ.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위한 <...>

이들은 모두 용언의 의미가 추상화되면서 문법화를 겪고 있거나 ‘의 존명사+이다’가 용언으로 문법화되고 있는 예인데 ‘-기 위하여/위한’과 같은 경우에는 후치사로 문법화되어 후행하는 용언의 활용 역시 불완전 활용의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격조사가 고정되어 있어 쉽게 예측 가능하고 그로 인해 생략되는 일도 많아 결국 생략된 채로 굳어지는 것으로 보인다.⁹⁾

8) 한 심사위원께서 추측의 ‘같다’의 경우에는 ‘-이다’, ‘-답다’와 마찬가지로 자립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다. ‘같다’의 경우에도 의존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다’, ‘-답다’와 같은 정도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우선 ‘-이다’, ‘-답다’의 경우 보조사의 개입도 불허하지만 추측의 ‘같다’는 보조사 개입이 가능하며 뒤에 언급할 ‘명사+같다’가 추측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자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문법화된 구성에서 격조사가 생략되어 굳어지는 일은 흔하다. ‘-기 때문에/때문이다’가 그렇고 추측 구문인 ‘-ㄴ/ㄹ지(도) 모르다’ 역시 그렇다. ‘-기’와 ‘-지’ 뒤에

이러한 구문에서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도치하기 어려운데 바꿔 말하면 문장 성분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 (10) ㄱ. 철수는 나이가 같다. 영희와.
 ㄴ. *철수는 같다. 아직 학생인 것.
 (cf). *기차가 시작했다. 움직이기.

이런 특성으로 인해 ‘-ㄴ/르 것 같다’ 구문에서 ‘-ㄴ/르 것 같다’를 분석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단위처럼 파악하는 논의도 많은데 정말 그렇다면 ‘것 같다’의 ‘같다’의 정체성은 ‘것 같다’ 구문 안에서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을 상기해 보자.

- (11) ㄱ. 철수는 학생인 것 같다.
 ㄴ. 철수는 학생 같다.

위의 예에서 (11ㄴ)은 중의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비유 구문으로서 철수가 학생이 아닌데도 학생과 유사한 데가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하나는 (11ㄱ)과 같이 추측 구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때 (11ㄴ)이 추측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것 같다’ 구문에서 ‘-ㄴ/르 것’이 ‘같다’ 추측 구문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방증일 수도 있다. 추측의 의미는 ‘같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김선혜(2019)에서는 ‘것 같다’ 구문을 형용사 ‘같다’와 ‘같다’가 요구하는 보문자 ‘-ㄴ/르 것’로 분석하여 이를 일종의 연어 구성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면 ‘같다’는 보문으로 명사절을 요구하고 따라서 명사화소 중 ‘-ㄴ/르 것’이 선택되는 것일 뿐 이들은 하나의 단위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측의 의미는 ‘같다’가

보조사가 개입할 수는 있어도 격조사가 실현되는 일은 없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본고 역시 이 논의와 비슷한 맥락에서 형용사 ‘같다’가 보문으로 ‘것’ 절을 요구하는 관계라고 본다.

1절의 내용과 본 절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것 같다’ 구문의 구조와 각 성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2) 나는(주어) [[비가 오]ㄴ 것](보문) 같다(서술어).

1인칭 화자를 주어로 갖는 서술어 ‘같다’는 보문으로 ‘-ㄴ/ㄴ 것’ 절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추측을 나타내는 ‘같다’의 경우 보문화소로 ‘-ㄴ/ㄴ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독특한데 이는 ‘-ㄴ/ㄴ 것’이 명사화소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남기심(2001)이나 문숙영(2017)과 같은 논의에서는 이미 ‘-ㄴ/ㄴ 것’을 명사화소로 볼 것을 주장한 바 있는데 -ㄴ/ㄴ 것’을 일종의 명사화소이자 보문자로 볼 수 있다면 추측의 ‘같다’가 보문자로 ‘-ㄴ/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¹¹⁾

‘-ㄴ/ㄴ 것 같다’ 구문의 ‘-ㄴ/ㄴ 것’ 절이 보문이고 이때 ‘관형사형 어

10) 이렇듯 일정 보문자만을 요구하는 용언의 경우 보문자와 용언의 관계가 가깝고 실제 연결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문법화의 과정을 겪는 경우도 많다. 다음과 같이 발화동사 ‘하다’는 인용절만을 보문으로 허용하는데 항상 연결해서 나타나고 도치되어 나타나는 일이 없다.

예) ㄱ. 철수는 지금 출발한다고 한다.

ㄴ. *철수는 한다. 지금 출발한다고

11) 문숙영(2017)에서는 ‘것’ 명사절을 취하는 용언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데 ‘요구하다’, ‘요청하다’, ‘촉구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특히 ‘-기’ 명사절보다 ‘것’ 명사절을 요구하는 빈도가 더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기’ 명사절도 보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것’ 절만을 보문으로 삼는 ‘같다’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 ‘-기’ 절로 대체되기 어려운 예도 발견된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예) 짜릿한 전율이 {재현될 것이/*재현되기} 두렵다.

미+것’이 보문자인 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도 방증될 수 있다.

(13) 할아버지는 늦으실 것 같다.

위의 예에서 ‘할아버지는’이 ‘늦다’의 주어임은 분명하다. 이 때의 ‘할아버지는 늦으실 것’을 일반적인 관형사절과 의존명사 ‘것’의 결합으로 보면 ‘할아버지는’는 ‘는’과 결합하여 주제화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 김인택(2002)를 위시한 내포절 연구에서 내포절의 주어가 주제격 조사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그렇다면 주체어로 해석되는 ‘할아버지는’은 관형사절의 주어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김선혜(2014)에서는 ‘인용절’의 주어가 주제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내포절 중에서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보문이 되는 인용절과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주제화가 가능함을 보였는데 ‘같다’의 ‘-ㄴ/ㄹ 것’ 절이 인용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문이라면 이때 ‘할아버지는’의 주제화가 설명된다.¹²⁾ 이때 ‘-ㄴ/ㄹ 것’이 보문자가 되어 ‘것’ 절을 보문화하여 ‘할아버지는 늦으실’이 관형사절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것 같다’ 구문을 형용사 ‘같다’를 서술어로 하고 ‘것’ 절을 보문으로 갖는 구문으로 볼 수 있다면 다음으로는 ‘같다’가 비교 구문이나 비유 구문에 쓰인 ‘같다’와 다른 특성을 가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2) 김선혜(2014)는 인용절과 같이 상위문 서술어의 직접 지배를 받는 성분의 경우 관형사절이나 명사절과 같은 내포절과 다른 구조를 가진다고 본다.

3. ‘같다’의 의존성 문제

앞서 ‘-ㄴ/ㄷ 것 같다’가 순서와 형태가 고정되어 쓰이기는 하나 통사적으로는 별개의 단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논했다. 그러나 김지은(2009) 등과 같은 선행 연구에서 ‘같다’가 추측 구문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항상 ‘-ㄴ/ㄷ 것’에 후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같다’를 의존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ㄴ/ㄷ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의 정체성을 논하기 위해서 ‘같다’의 의존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는 ‘-ㄴ/ㄷ 것 같다’ 구문의 ‘같다’를 서술어로서 형용사의 일종으로 보는데 이렇듯 ‘같다’를 형용사의 일종으로 볼 때 ‘같다’의 의존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통사적 접사설과 김창섭(2011)의 부접형용사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지은(2009)에서는 명사구 뒤에 나타나는 ‘같다’는 통사부에서 명사구와 결합하는 통사적 접사로 보는데 이렇듯 추측 구문의 ‘같다’를 통사적 접사로 보는 대표적 논의로는 시정곤(1995)이 있다. 통사적 접사란 학자에 따라 다양한 정의와 범주를 갖긴 하나 시정곤(1995)의 정의에 따르면 ‘그 기능이 통사 구성에 걸치는 접사’라고 볼 수 있다. 통사적 접사는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 문제와도 관련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문이 통사적 접사 논의를 촉발하였다.

- (14) ㄱ. 명수는 [용감한 군인]NP답다. (시정곤 1994: 34)
 ㄴ. 그는 [훌륭한 의사]NP이다. (시정곤 2005: 74)

위의 예문에서 접사 ‘-답다’는 어근 명사인 ‘군인’과 결합하여 ‘군인답다’라는 형용사를 파생해야 하지만 ‘용감한 군인’이라는 통사 구성에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통사적 접사는 위와 같이 ‘-

답다’와 ‘-이다’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답다’와 ‘-이다’는 형태론적 차원에서든 통사론적 차원에서든 항상 의존적인 존재로 형태론적 차원에서 독립성을 가진 ‘같다’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같다’를 통사적 접사의 일종으로 보는 논의는 ‘-이다’와 ‘-답다’와 분포가 같아 보이는 예문들에 한정된 관찰이 낳은 결론이라고 본다. ‘같다’를 통사적 접사로 보는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15) ㄱ. 그는 [믿을 만한 사람]같다. (시정곤 2005: 75)

ㄴ.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 같다.

통사적 접사절은 [선행 명사구+통사적 접사]가 하나의 단어-서술어처럼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 일견 (15ㄱ)에서 주어 ‘그는’의 서술어가 ‘믿을 만한 사람같다’처럼 보이거나 (15ㄴ)의 예에서 보듯 1인칭 주어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믿을 만한 사람같다’를 ‘나는’의 서술어로 보기 어렵다. ‘나는’을 주어로 하여 ‘그는 믿을 만한 사람같다’ 전체를 서술어로 보는 것 역시 무리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것 같다’ 구문에서 1인칭 주어를 상징할 수 있고 ‘같다’가 ‘것’ 절을 보충어로 하는 서술어로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문장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통사적 접사와 김창섭(2011)의 부접형용사절의 가장 큰 차이는 통사적 접사는 선행 요소와 접사 ‘같다’의 결합이 통사적이긴 하지만 이들이 결합된 구성이 하나의 통사 단위처럼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한 반면, 김창섭(2011)의 부접형용사절에서는 선행 요소와 ‘같다’가 결합된 구성을 일반적인 통사적 구성으로 본다는 것이다. ‘같다’와 ‘-ㄴ/ㄹ 것’ 절의 결합은 격 표지가 없을 뿐,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보충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본고의 ‘같다’를 형용사로서 ‘-ㄴ/ㄹ 것 같다’ 구문의 서술어로 본다는 것은 김창섭(2011)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창섭(2011)의 부접어설은 이러한 구성에서 보충어에 격표지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였으나 본고는 원래 용언에서 의미 확장이 일어난 서술어가 특정 보문소만을 요구하는 관계에서 특정 보문소와 용언 간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순서 또한 고정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어떤 구성이 문법화되기 전 단계로 본다. 즉, 본고는 격표지의 실현 여부보다 서술어와 특정 보문소와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다. 이 구성이 이미 문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16) ㄱ.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ㄴ.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기 마련이다.
 ㄷ. 그는 그 의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ㄹ. 그는 지금 막 출발하려고 했다.

위의 예문들에서 밑줄 친 부분이 보문소가 되는데 서술어인 용언이 해당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해당 보문소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이들의 순서가 고정적이고 두 요소의 사이에 다른 요소가 개재되기 어렵다. 그러나 보문소의 통사 기능과 서술어의 통사 기능이 각자 독자적으로 남아 있어 아직 하나의 단위로 융합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5ㄱ)과 같은 문장에서 ‘것’에 결합하지 않고 명사나 명사구 등에 바로 ‘같다’가 결합하여 추측 구문처럼 해석되는 예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보인 예문을 다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7) ㄱ. 저 사람은 학생 같다. (=저 사람은 학생인 것 같다.)
 ㄴ. 그는 믿을 만한 사람 같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 같다.)

위의 예문이 모두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때 이때의 ‘같다’가 ‘-ㄴ/르 것 같다’의 ‘같다’와 일견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보문소 없이 명사나 명사구가 서술어의 보충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위의 예문에서 1인칭 주어를 상정하면 아래와 같은데 아래 (18ㄱ,ㄴ)의 문장이 (17)의 문장에 비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 (18) ㄱ. 나는 저 사람은 학생 같다.
- ㄴ. 나는 그는 믿을 만한 사람 같다.
- ㄷ. 나는 저 사람이 학생 같다.
- ㄹ. 나는 그가 믿을 만한 사람 같다.

(18)의 예문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조사 ‘는’의 중출 때문이기도 한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것 같다’ 구문의 주어가 ‘는’ 표지를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17)의 ‘저 사람은’과 ‘그는’이 ‘는’ 표지를 갖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사실 (18ㄱ,ㄴ)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꾸면 (18ㄷ,ㄹ)과 같다.

여기에서 또 주목할 것은 추측의 ‘같다’가 명사와 바로 결합할 때의 의미는 ‘일 것 같다’가 아닌 ‘인 것 같다’에 대응한다는 점이다. 즉, ‘저 사람은 학생 같다’의 추측은 보통 직접 경험한 근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는 ‘-ㄴ/르 것 같다’의 ‘같다’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명사에 결합하는 추측의 ‘같다’가 ‘-ㄴ/르 것 같다’의 ‘같다’에서 비롯되었으나 달리 문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같다’는 ‘-ㄴ/르 것 같다’의 ‘같다’에 비해 의존성도 높고 일종의 접어(clitics)적 특성¹³⁾을 보이는 듯하다. ‘같다’를 접어로 보면 아래와 같은 구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 (19) ㄱ. 저 사람은(주어) [학생-같다](서술어)
 ㄴ. 그는(주어) [[민을 만함] 사람-같다](서술어)

위와 같은 분석은 ‘같다’를 통사적 접사로 분석하는 예와도 유사한데 ‘같다’를 접어로 분석하던 통사적 접사로 분석하던 이러한 예가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에 있는 예인 것만은 확실하다.¹⁴⁾ 본고는 위와 같이 ‘-ㄴ/르 것’ 절의 개재 없이 ‘같다’와 결합하는 예의 경우 ‘-ㄴ/르 것 같다’와 다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다만 ‘-ㄴ/르 것 같다’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문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III. ‘같다’의 정체성

1. 심리형용사 ‘같다’

2장에서 본고는 ‘같다’가 여전히 모문의 서술어임을 보였다. ‘같다’가 여전히 형용사라고 할 때 그렇다면 추측 구문의 ‘같다’가 보이는 특성은

13) Hopper, P. J and Traugott, E.C(1993:7-14)에서는 문법화의 과정을 ‘내용어 > 기능어 > 접어 > 굴절접사’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기능어가 굴절접사로 문법화되는 중간 단계가 바로 ‘접어’가 된다. 접어는 흔히 선행어에 의존적이지만 통사적으로는 독립적이다.

14) 김건희(2007)에서 ‘N같다’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찰하면서 ‘N같다’는 통사 구성에서 형태적 구성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았다. 본고 역시 ‘N같다’가 통사적 구성과 형태적 구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동의하나 위의 논의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가진 ‘같다’와 유사성을 의미하는 ‘같다’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사성을 의미하는 ‘같다’ 역시 접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논의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본고는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2장에서 살펴본 주어 제약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ㄴ/ㄹ 것 같다’ 구문에서 주어는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1인칭 화자로 볼 수 있고 인칭 제약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0) ㄱ. (나는) 비가 올 것 같다.
- ㄴ. *그는 비가 올 것 같다.
- ㄷ. 그는 비가 올 것 같았다.

(20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인칭 화자 주어의 경우 비실현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연스럽게 상정되는 반면, (20ㄴ)처럼 3인칭 주어가 올 경우 비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ㄷ)처럼 3인칭 주어가 사용된 ‘-ㄴ/ㄹ 것 같다’ 구문에서 ‘같-’에 선어말어미 ‘-었-’을 결합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칭 제약은 다음 형용사 구문의 특징과 비슷하다.

- (21) ㄱ. (나는) 영희가 귀엽다.
- ㄴ. *그는 영희가 귀엽다.
- ㄷ. 그는 영희가 귀여웠다.

위의 ‘귀엽다’는 심리 형용사로 분류되는데 ‘-ㄴ/ㄹ 것 같다’ 구문의 주어 제약이 심리형용사의 주어 제약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유현경(1998)에 따르면 형용사는 크게 객관 형용사와 주관 형용사로 나눌 수 있는데 객관 형용사 구문의 경우 화자가 문장의 주어로 나올 수 없는 반면, 주관 형용사 구문에서는 평서문일 때 화자가 곧 주어가 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추측 구문의 ‘같다’는 주관 형용사의 일종일 수 있다. 유현경(1998)은 주관 형용사를 다시 심리 형용사, 감각 형

용사, 판단 형용사로 나누는데 ‘것 같다’의 주어 제약이 심리 형용사와 유사하다. ‘-ㄴ/ㄷ 것 같다’ 구문을 대표적인 심리 형용사인 ‘두렵다’ 구문과 비교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 (22) ㄱ. (나는) 아버지가 두렵다.
 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두렵다.
 ㄷ.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두려웠다.
 ㄹ. 나는 아버지가 두렵지 않다.
 ㅁ. {나는/*너는/*그는} 아버지가 두렵더라.
 ㅂ. 그는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 (23) ㄱ. (나는) 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다.
 ㄴ.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으시다.
 ㄷ.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으셨다.
 ㄹ. 나는 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지 않다.
 ㅁ. {나는/*너는/*그는} 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더라.
 ㅂ. *그는 아버지가 늦으실 것 같아한다.

유현경(1998) 등에서 심리형용사의 경험주 주어는 ‘는’ 표지가 자연스러운 것을 특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22/23ㄱ)에서처럼 ‘-ㄴ/ㄷ 것 같다’ 구문의 주어 역시 ‘는’ 표지가 자연스럽다. 또한 (22/23ㄴ, ㄷ, ㄹ)은 주어의 인칭 제약과 그 해소에 관한 특성을 보여 주는데 평서문일 때 주어가 1인칭으로 제약된다. 이러한 인칭 제약은 과거형의 시제가 사용되면 해소된다. 위의 예문을 보면 ‘-ㄴ/ㄷ 것 같다’ 구문은 심리형용사 ‘두렵다’ 구문과 여러 통사적 특성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2ㅁ)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형용사는 ‘-어 하다’와 결합하여 심리동사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23ㅁ)에서 ‘-ㄴ/ㄷ 것 같다’에 ‘-어 하다’가 결합한 예는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이와 같이 ‘-어

하다’의 결합에서만 ‘같다’가 다른 심리형용사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ㄴ/ㄹ 것 같다’ 구문에 ‘-어 하다’가 결합한 예가 인터넷 용례에서는 찾아볼 수 있었다.

- (24) ㄱ. (토론 중에는 자신만만했었는데) 토론이 끝나고 대기실에 나와서
 는 서로가 질 것 같아했다.
 ㄴ. 승마 체험을 하고 나니 아이는 장군이라도 된 것 같아했다.

본래 ‘-어 하다’의 경우 3인칭 주어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것 같다’의 경우 추측 구문의 특성상 3인칭 주어의 추측을 나타내는 데에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어 하다’와의 결합이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중들이 ‘같다’를 심리 형용사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ㄴ/ㄹ 것 같다’ 구문은 심리 형용사 구문과 통사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데 통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추측’이라고 하는 인지 작용과 인간의 심리 작용을 나타내는 심리 형용사는 의미상으로도 서로 관련이 있다.

유현경(1997)에서는 심리 형용사를 다시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형용사로 하위 분류하고 있는데 대상 심리형용사는 대상에 대한 경험주(Experiencer)의 판단을 서술하는 것이고 원인 심리형용사는 어떠한 사실이나 일이 원인이 되어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유발한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한다. ‘같다’가 심리 형용사라고 볼 때 ‘같다’가 나타내는 심리 상태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다’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다. ‘-ㄴ/ㄹ 것’ 절은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나타내게 되는데 의미상으로는 대상에 대한 경험주의 판단을 서술하는 대상 심리형용사에 가깝다. ‘-ㄴ/ㄹ 것 같다’ 구문의 구조를 심리형용사 격틀

로 환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ㄱ. NP1는 NP2이 Adj

ㄴ. 나는(경험주) [[비가 오]ㄴ 것](보문) 같다(심리형용사).

유현경(1997)에 따르면 원인 심리 형용사의 경우 NP2가 수의적인 데 반해 대상 심리 형용사의 경우에는 NP2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ㄴ/ㄴ 것 같다’ 구문은 대상 심리 형용사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김건희(200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상 심리형용사와 원인 심리 형용사가 잘 구분되지 않는 예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같다’를 넓게 심리 형용사의 일종으로만 보고자 한다. 또한 심리형용사의 경우 논항 교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지적되는데 ‘-ㄴ/ㄴ 것 같다’ 구문의 [NP1은 NP2가 adj] 구조에서 NP1이 자주 비실현되는 일로 인해 NP2가 주어처럼 해석되고 이에 2장에서 논의한 ‘같다’의 접어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 심리 형용사 ‘같다’의 의미 발달과 용법

본고의 앞선 논의를 따르면 ‘같다’는 본래 객관 형용사의 일종인 대칭 형용사에서 주관 형용사인 심리 형용사로 발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ㄴ/ㄴ 것 같다’ 구문의 추측 의미는 비유 구문에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대상 A의 속성이 B와 비슷하다]라는 의미에서 [대상 A의 속성이 마치 B와 같다]로 발달하고 다시 [대상 A의 속성이 B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추측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점을 ‘유추’하는 인지 작용이 추측이라는 인지 작용으로까지 변진 것이다. 김동욱(2000)을 위시한 선행 연구들에서 ‘-ㄴ/ㄴ 것 같다’ 형식이 추측의 기능을 가

지는 것에 대해서 ‘같다’가 “동일성”을 의미로 가짐으로써 가정적 동일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같다’가 이러한 문법화 과정¹⁵⁾을 겪게 된 원인일 수는 있으나 이 구성이 추측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공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공시적으로 대칭 형용사인 ‘같다’와 심리 형용사인 ‘같다’는 격틀을 달리 하는 다른 형용사로 발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ㄴ/르 것 같다’, ‘-ㄴ/르 모양이다¹⁶⁾’, ‘-ㄴ/르 듯하다’와 같이 한국어 추측 구문에는 형용사 구문이 많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화자가 ‘추측’과 같은 인지 행위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식보다 상황이나 사태의 속성이 그렇다는 설명 방식을 취하거나 상황에 대해 화자의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설명을 택한다는 것이 흥미롭다. 본래 ‘추측’ 표현은 명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완곡’¹⁷⁾의 담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추측’이란 화자가 단언을 피하고자 사용될 때가 많은데 따라서 ‘거절’ 등에 대한 화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더해 화자의 인지 행위보다 상황이나 사태의 속성, 또는

15) 대칭 형용사에서 심리 형용사로 발달한 것이 문법화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문법화의 개념이나 정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법화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Kuryłowicz(1975: 52)의 정의와 같이 문법화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그 정도성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본다면, 또한 구체적인 의미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발달하는 것이 더 문법적인 것이라고 본다면 대칭 형용사에서 심리 형용사로 발달하는 것 역시 문법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6) ‘-ㄴ 모양이다’ 구문에서 ‘모양이다’는 항상 ‘모양이다’의 꼴로 써서 형용사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의존명사+이다’ 구성이 형용사로 문법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김미형(2000)에 의하면 “완곡 표현”이란 “듣기에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충격을 주는 등 좋지 않게 들리는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어감을 완화시키는 표현”이다. 주로 비난이나 요청, 단언, 거절, 명령, 주장 등에 대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화자의 심리 상태로써 ‘추측’에 대해 서술하는 것은 추측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더욱 경감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26) 거절에 대한 완곡

- ㄱ. 오늘은 너를 도와주기 힘들 것 같다.
- ㄴ. 오늘은 너를 도와주기 힘들 듯하다.
- ㄷ. *?오늘은 너를 도와주기 힘들 모양이다.

(27) 주장에 대한 완곡

- ㄱ. 그건 설문 조사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 ㄴ. 그건 설문 조사를 해 보면 될 듯해요.
- ㄷ. *?그건 설문 조사를 해 보면 될 모양이에요.

그러나 모든 추측 표현이 완곡 기능을 가지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보듯 ‘-ㄴ/ㄹ 모양이다’의 경우 ‘거절’이나 ‘주장’에 대한 완곡 표현으로 쓰이기 힘들다. 이는 같은 형용사 추측 구문이라고 할지라도 ‘-ㄴ/ㄹ 것 같다’나 ‘-ㄴ/ㄹ 듯하다’는 1인칭 화자를 경험주로 갖기 때문에 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절’이나 ‘주장’에 대한 완곡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객관 형용사처럼 쓰이는 ‘모양이다’가 쓰인 ‘-ㄴ/ㄹ 모양이다’ 구문은 ‘거절’, ‘주장’에 대한 완곡 표현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ㄴ/ㄹ 것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피고 이에 따라 ‘같다’의 정체성을 논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ㄴ/ㄹ 것 같다’를 하나의 단위로 상정했던 기존 연구와 달리 ‘-ㄴ/ㄹ 것 같다’ 구문은 ‘-ㄴ/ㄹ

것’의 문법화와 ‘같다’의 문법화가 별개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보고 ‘같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였다는 데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ㄴ/ㄹ 것 같다’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ㄴ/ㄹ 것 같다’ 구문의 주어로 1인칭 주어를 상정해 볼 수 있었으나 이 1인칭 주어가 비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서술어인 ‘같다’가 보문으로서 ‘-ㄴ/ㄹ 것’ 절을 요구하는 구조로 보고 추측의 의미를 가진 ‘같다’는 ‘-ㄴ/ㄹ 것’만을 보문소로 요구하는 용언으로 보아 ‘같다’의 의존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ㄴ/ㄹ 것 같다’ 구문에 쓰인 ‘같다’는 심리 형용사적 특징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같다’ 비교 형용사에서 심리 형용사로 발달하였음을 논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리 형용사적 의미특성으로 인해 거절이나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담화 기능이 있음을 살폈다.

그러나 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ㄴ/ㄹ 것 같다’ 구문의 ‘같다’가 명사나 명사구 등에 바로 결합하는 예에서 이때의 ‘같다’는 ‘-이다’나 ‘-답다’와 같이 일종의 접어적 특성을 보인다. 이때 ‘같다’는 추측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ㄴ/ㄹ 것 같다’ 구문에서 문법화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경우 ‘-ㄴ/ㄹ 것 같다’ 구문과 다른 통사적 특징을 가진다. ‘-ㄴ/ㄹ 것 같다’ 구문의 ‘같다’ 역시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문법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몇몇 예문에서는 이미 그런 특성이 보인다. 이러한 ‘같다’의 문법화 진행 양상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기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고창수, 『어간형성접미사의 설정에 대하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6.
- _____,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제22탄, 국어학회, 1992. 259-269.
- 김건희, 「심리 형용사 연구」, 『언어학』 제37집, 한국언어학회, 2003, 47-70.
G704-000314.2003.37..002
- _____, 「'N 같다, 'N같다에 대한 연구」, 『국어학』 제50탄, 국어학회, 2007, 149-180.
G704-000064.2007..50.002.
- 김동욱, 「한국어 추측 표현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 『국어학』 제35탄, 국어학회, 2000, 171-197.
- 김미형, 「국어 완곡 표현의 유형과 언어 심리 연구」, 『한말연구』 7집, 한말연구학회, 2000, 27-63.
- 김선혜, 「한국어 내포문 체계에 대한 재고-부사절과 인용절의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8집, 2014, 131-156. G704-001387.2014..48.007.
- _____, 『한국어의 우연적 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 김인택, 「한국어 내포절의 범주 설정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40집, 한민족어문학회, 2002.
- 김정아, 『15세기 국어의 비교 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지은, 『통사적 접사 '-갈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창섭,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 제62탄, 국어학회, 2011, 47-72.
G704-000064.2011..62.004.
- _____, 「갈다의 의미와 기본 구문」, 『진단학보』 116집, 2012, 진단학회, 217-239.
G704-000336.2012..116.001.
-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 문숙영, 「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것' 명사절」, 『국어학』 제84탄, 국어학회, 2017, 33-88. 10.15811/jkl.2017..84.002.
- 박승윤, 「형식명사 술어 구문의 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5-2집, 담화와 인지 언어학회, 1998.
- 시정곤, 「핵이동과-이/답/히/갈-'의 단어 형성」, 『생성문법연구』 5-2집, 생성문법학회, 1995.
- _____, 「'이다' 구문과 통사적 접사설을 다시 논의함」. 『한국어학』 28집, 한국어학회,

- 2005, 55-80. G704-000626, 2005, 28, .005.
- 안주호, 「한국어 추측 표현의 통사, 의미 연구」, 『새국어교육』 68집, 국립국어원, 2004, 97-121. G704-001209, 2004, .68, 010.
- _____, 「“용언‘같-’ 구문의 공시성과 통시성」, 『새국어교육』 77집, 국립국어원, 2007, 441-465. G704-001209, 2007, .77, 029.
- 유현경, 「심리형용사 구문에 대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2-1집, 199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7, 87-119.
- _____, 『한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이근용, 「“같다의 통사와 의미”」 『어문학논집』 제26집, 2007, 113-123.
- 이한규, 「‘것 같다’의 화용 의미」, 『텍스트언어학』 제10집, 2001, 텍스트언어학회, 2001, 269-291.
- 전나영, 「‘-나 보다/-모양이다/-것 같다/-ㄴ 것이다/-겠다의 의미기능」, 『말』 23-1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99, 169-198.
- Hopper, P. J and Traugott, E. C,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Kurylowicz, Jerzy, *Esquisses linguistiques II*, Munich: Wilhelm Fink Verlag, 1975.

Abstract

The study of the adjective ‘*kath-ta*(same)’ focused on the
‘*kes kath-ta*’ construction

Kim, Sun-hy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kath-ta*’ used in the ‘*kes kath-ta*’ construction by analyzing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kath-ta*’ construction, which holds the meaning of conjecture. According to this study’s analysis, the ‘*kes kath-ta*’ construction consists of a first-person subjective, and the ‘*kes*’ clause can be seen as a complement to the adjective ‘*kath-ta*.’ The ‘*kath-ta*’ of the ‘*kes kath-ta*’ constructions appears to have evolved from being a ‘comparative adjective’ to a ‘psychological adjective’, thus showing similar grammatical properties to those of ‘psychological adjective constructions.’

Key Words : *kath-ta*, Speculative expressions, Grammaticalization, Psychological adjectives, Syntactic affixes

김선혜

소속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전자우편 : tjspdi@daum.net

이 논문은 2021년 2월 17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